



손에 잡힐 듯 가까워서 빙하를 경험하다. 알래스카 크루즈

롯데관광, 취향에 맞춰 즐기는 알래스카 크루즈 3개 상품 출시
알래스카 여행 최적기인 5~9월 출발...전문 인솔자 동행



선내 수영장

날씨가 더워지면 서늘한 곳이 최고다.

새하얗고 눈부신 빙하가 눈 앞에 펼쳐진 알래스카는 여름철 '서늘한' 여행지로 적격이다. 태고의 자연을 품고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수려한 경관과 대자연이 살아 숨 쉬는 듯 생동감이 넘쳐 흐른다. 그래서 여름철 5월부터 9월 알래스카에는 세계 여행객이 몰려온다.

알래스카를 오롯이 만끽하고 싶다면 크루즈 여행이 가장 좋다. 알래스카 크루즈만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상품 중에서 11일간의 앵커리지 빙하 크루즈가 대표적인 상품이다. 앵커리지에서 출항하는 흔치 않은 코스로, 알래스카주의 최대 도시인 앵커리지 시내를 둘러보고 육지의 빙하를 경험해볼 수 있다.

앵커리지 관광의 하이라이트는 북미 대륙의 최고봉인 매킨리산을 포함한 산출기를 둘러보는 경비행기 탑승이다. 약 90분에 걸쳐 알래스카의 창공을 비행하면서 발아래로 펼쳐진 만년설과 깎아지른 듯한 협곡을 내려다보면 탄성이 절로 나온다. 경비행기에서 내려 직접 알래스카의 눈을 밟아볼 수 있다. 알래스카의 신선한 식재료를 이용한 음식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묘미. 다양하고 수준 높은 요리들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즐길 수 있다.

크루즈에는 서커스, 뮤지컬, 요리 시연, 마술쇼 등 다채로운 엔터테인먼트도 마련돼 있다. 끊임없이 펼쳐지는 이벤트를 즐기며 알래스카의 대 자연을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은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타고 다닐 선박은 프린세스 크루즈사의 대표적인 대형 크루즈 로열 프린세



선내 공연

스호다. 3천560명이 승선할 수 있는 규모로, 프린세스 크루즈사가 보유하고 있는 17척의 배 가운데 14만에 이르는 가장 큰 규모다. 2013년 영국의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이 대모 자격으로 명명식을 거행해 첫선을 보였다. 승객들에게 매일 즐거움을 제공하는 거대한 아트리움 '피자'를 비롯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경험을 선사하는 씨워크, 최대 규모의 스파 엔클라브와 각종 트리트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터스 스파, 생방송 스튜디오, 성인 전용 시설 생츄어리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알래스카 크루즈는 앵커리지 코스 외에도 정통 알래스카 크루즈 10일 코스와 혁신적인 선내 엔터테인먼트를 갖춘 노르웨이안 조이호를 승선하는 10일 코스 상품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롯데관광 홈페이지(www.lottetour.com)를 참고하거나 크루즈 사업부(02-2075-3400)에 문의하면 된다. ❶